

동북 3성 문화관 관장 교류회 및 문예공연 흑룡강서

동북 3성 조선족 문화관 관장 교류회의 및 문예공연 행사가 중화민국공동체의식 구축을 취지로 일전 흑룡강성 계서시와 밀산시에서 개최되었다. 계서시 중심에 위치한 목룡하공원 로천무대에서 동북 3성 소수민족 문예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계서시당위 선전부장 등 당지 간부들과 동북 3성 각지에서 모여온 조선족 문화관 관장 등 래빈들이 당지 관중 3,000 여명과 함께 민족특색이 짙고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였다.

뽕과리, 장구, 북, 징이 동원된 흥겨운 사물놀이가 첫 무대를 장식했다. 30 여명의 계서시 조선족 학생들이 아름다운 민족복장을 입고 신명 나는 공연을 펼쳤다. 이어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의 무용〈칼춤〉, 계서시조선족예술관의 노래〈아리랑〉, 목단강시조선민족예술관의 무용〈모란봉〉,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의 바이올린 연주, 연변가무단 출신의 김재분 중음가수의 노래〈후련별 대조원〉등으로 이어지며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가 펼쳐졌다.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대표팀 김성일씨의 성대모사시범(特技口技表演)은 부채, 악병, 비닐봉지 등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들이 악기로 변하여 새소리, 병아리소리 및 각종 음악소리를 신묘하게 내어 수시로 터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장춘시조선족중예술관 리상호 관장이 부른 노래〈막걸리 한잔〉과〈사랑타령〉은 그 흥겨운 가락으로 무대우와 관중석이 하나로 어울리며 분위기가 고조를 이루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리상호 관장에게 많은 팬들이 물려가 싸인을 받아가는 등 즐거운 장면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정채로운 무대 공연들



면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공연은 계서시조선족문화관의 색소폰 연주와 무용〈즐거운 하루〉로 아쉬운 막을 내렸다.

밀산시에서의 공연은 밀산시 항공공원(航空公園) 로천무대에서 펼쳐졌다. 밀산시는 항일무장투쟁의 발원지인 동시에 신중국 항공사업, 인

민해방군 장갑병의 요람이기도 하다. 동북민주련군항공학교가 밀산시에서 3년 4개월 운영되면서 밀산시는 인민공군의 탄생지로 불리기도 한다.

공연은 밀산시조선족문화관, 밀산시 중업원의 집 등에서 합세하며 축제의 장을 이어갔는바 관중들은 이렇

게 수준 높은 공연은 정말로 오랜만이라며, 더 오래 보고 싶다며 자리를 뜰념을 하지 않아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교류회 및 흥회는 풍경이 수려한 흥개호관광지에도 이동해 진행되었다.

/ 흑룡강신문

천년을 이어온 귀주 토착 음식 ‘신탕’

귀주성 금동남요족풍족자치주 개리시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신탕(酸汤)’을 접할 수 있다. 천년을 이어온 이 전통 음식은 식당을 찾는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으로 성장했다.

정오가 되자 개리시 파라하 연안에 자리한 평락촌 집집마다에서는 신탕 냄새가 풍겨나왔다. 개리 사람들은 오래동안 신탕을 즐겨왔다. 평락촌 부주임 황지사는 개리 사람들은 거의 매일 신탕을 즐겨 먹는데 일하고 난 후에도 피로를 풀기 위해 신탕을 먹었다고 했다.

이제 신탕은 지역의 먹거리를 넘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귀주 당원채생물기술회사 책임자 오독금은 신탕 사업에 몸 담고 있다. 1980년대 개리의 거리 로점에서 볶음요리를 해 팔며 신탕을 함께 내주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는 “당시에는 신탕이 토착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나중에는 신탕을 주문하는 외지인들이 많아졌다.”고 소개했다.

평락촌 부주임 황지사도 요족 마을인 계도모체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신탕을 대접하고 있는데 일부는 포장까지 해간다고 말했다.

신탕은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존처럼 농가에서 발효하게 되면 균과 환경에 따라 신탕



▲ 신탕 제조법을 설명하고 있는 오독금씨

의 맛이 달라지게 된다. 일정한 맛의 신탕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독금은 대학교와 협력해 신탕 발효 기술을 개선하고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구나 제대로 된 개리 신탕을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신탕산업과 관련해 금동남요족풍족자치주는 지난 1월 기준 400여건의 상표를 등록하고 전국 62개 도시의 약 1,600개 음식점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또한 신탕 휘귀 소스, 신탕 분말, 신탕 음료 등 관련 제품이 전 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다.

신탕산업의 발전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면서 이제는 거리 어디서나

신탕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로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전체 금동남자치주의 신탕 료식업체 종사자수를 15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탕은 개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일조하고 있다. 오독금은 “현지에서 생산된 도마도, 고추, 산계초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맛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탕 연간 생산량이 지난해 1톤에서 올해 1만톤으로 늘었다.”면서 촘촘히 연결된 산업사슬과 맞춤형 기술을 바탕으로 개리의 신탕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 신화넷

조선족촌 로천에서 방영된 인기 영화 《상속자》

료녕성 료양시 태자하구 기가진 조광조선족촌에서는 8월 3일 저녁 촌광장에서 올여름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 《상속자(抓娃娃)》를 방영했다.

영화 속 주인공 마성강과 춘란 부부는 재벌이다. 첫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을 잃어버려 키우지 못한 마성강은 두번째 아내 춘란과의

아들을 인제로 키우기 위해 빈곤지역에 있는 옛집으로 이사해가 곤난가정으로 위장하고 생활한다. 영화는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아이를 엄하면서도 인내성 있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이들 부부의 자식교육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유모아적으로 보여주며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

촌민들은 “고운 자식 매 한대 더 때

리라고 여릴 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너무 총애하면 안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곤난이 무엇인지 알고 좌절을 당해도 헤쳐나올 수 있다”, “부모의 올바른 교육과 사회교육이 잘 어우러져야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다.”면서 소감을 교류했다.

/ 료녕신문

광서 금수 요족 ‘무형문화유산촌’

광서 금수요족자치현 룡향향 룡향촌은 무형문화유산촌 그 전승자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금수요족자치현 룡향향 룡향촌은 10개 자연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01 가구에 1,470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유구한 력사와 꾸밈없는 민속 풍습과 민족문화가 고스란히 남겨진 요족 집단 주거지다. 현재까지 룡향촌에는 각급 무형문화유산 15개 항목과 대표 전승자 17명이 있는바 현지에서 유명한 ‘무형문화유산촌’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 인해 룡향촌은 일년 내내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는다. 명절마다 요족 황니고(黄泥鼓)춤, 나비춤, 장군춤, 풍년춤 등이 등장해 현지 고 유 민속 풍습과 독특한 민족문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무형문화유산은 현지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추진기’가 되었다.

/ 인민넷



▲ 요족 황니고춤 전승자와 황니고 제조기술 전승자가 황니고춤을 추고 있다.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말복의 유래와 풍속

- 신기덕 -

말복은 립추후 첫번째 경일부터 립추후 두번째 경일 전날까지 총 10일을 말한다. 말복은 삼복 중 마지막 복으로 흔히 늦더위라고 한다. 말복에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하고 낮에는 여전히 해빛이 강하다.

복날의 유래에 대해서는 초복과 중복에서 이미 취급하였기에 생략하고 경금(庚金)에 대한 천간(天干)을 설명하면 십간(十干) 중에 경일을 복날로 삼은 까닭은 경(庚)은 속성상 약하고 오행으로 볼 때 금이며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금은 사계절 중에서 가을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내포되어있는 경일을 복날로 정해 더위를 극복하라는 뜻이다.

최영년의 〈약수욕(药水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옛 풍속에 6월 복날 부녀자들이 약수에 머리를 감았다. 예전에는 옥류동으로 갔지만 근래에는 정릉으로 간다. 풍이 없어지고 부스럼이 낫는다고 하여 해마다 행하는 것이 전례가 되었으니 이를 ‘물맞이’라고 한다.”

초복에서 개장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복에서 삼계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말복에서는 팔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양세시기〉에 “삼복에는 개장국이나 팔죽을 먹으니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초복부터 말복까지 먹는 풍속이 있었다. 팔죽은 벽사(辟邪)의 효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더운 복날에 악귀를 쫓고 무병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유래한 풍속이다.

삼복의 풍습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여름 과일을 즐기고 모래찜질 등을 하는 것이다. 삼복은 일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이를 ‘삼복더위’라 하였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내라는 뜻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표(冰票)를 주어 관의 얼음저장 창고에 가서 얼음을 타가게 하였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여름 과일을 즐기고 어른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간계곡으로 들어가 발을 담그면서 하루를 즐겼다. 한편으로 해안지방에서는 바다가의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다.

류성룡이 쓴 〈동자 둘과 함께 앞 시내가에서 발을 씻다〉를 간단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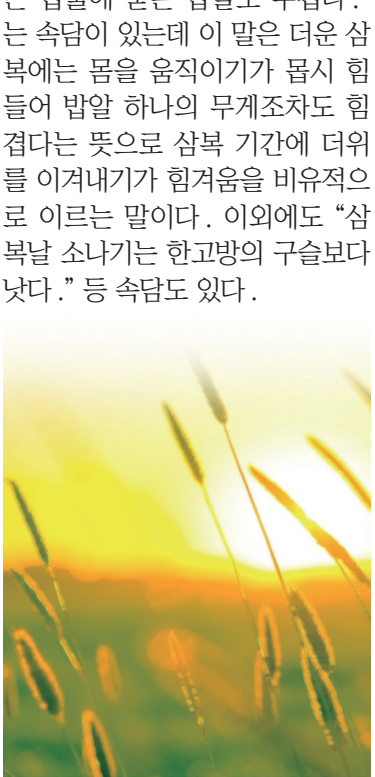
맑은 시내가에서 발을 씻고 시내물 텅기며 / 濯足清溪弄水花

동자 이끌고 내가의 모래판 거닐어보네 / 人携童子步溪沙

산 깊고 숲은 울창하여 보는 사람 없는데 / 山深树密无人见

곳곳마다 새로이 석죽화가 피네 / 处处新开石竹花

삼복과 관련된 속담이나 관용구가 많다. 그중에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더운 삼복에는 몸을 움직이기가 몹시 힘들어 밥알 하나의 무게조차도 힘겹다는 뜻으로 삼복 기간에 더위를 이겨내기가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외에도 “삼복날 소나기는 한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등 속담도 있다.



잉어와 800년 ‘동고동락’해온 전통마을



▲ 포원촌 잉어천 관광지에서의 한 소녀와 잉어등

복건성 녕덕시 주녕현 자운산 기슭에 있는 포원촌은 무더운 여름에도 날씨가 선선하다. 맑고 깨끗한 개울이 산기슭을 따라 마을을 휘감으며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데 개울에는 1만마리에 가까운 형형색색의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며 노닐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잉어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남송 말기에 포원촌으로 이주한 정씨 선조들이 개울에 잉어를 방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촌민 자치 규

약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800여년 동안 이곳 사람들은 잉어와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인문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포원촌은 2013년 중국전통마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주녕현은 근년 들어 포원촌의 잉어천 관련 문화를 발굴해 잉어천 화원, 민속관, 물고기 박물관 등 새로운 문화관광 장소를 조성하는 등 혁신적인 문화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농촌 활성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신화넷

하동정씨 족보 심양시보관서류관에 접수돼

일전 하동정씨 한림공파 중국파 족보가 심양시보관서류관에 접수되었다.

하동정씨 한림공파 중국파 종친회 정영수 초대회장으로부터 족보를 접수받은 심양시보관서류관 책임자는 심양지역에서 한개 성씨 종친들의 족보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출간한 사례는 처음으로 접한다며 심양시보관서류관 사료 보존에 일정한 의의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2019년 4월 23일에 발족한 하동정씨 한림공파 중국파 종친회는 지난 5년이래 종친간의 교류와 화합을 끊임없이 도모해왔으며 고한문에 조예가 깊은 북경시의 저명한 학자이며 사회활동가인 정인갑교수의 장의하에 드디어 동북 3성에 거주하는 33세대 종친들의 족보를 보충 정리해 통일출간하였다.

/ 료녕신문